

“한파 대비, 자동차 미리 점검해요”

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안내
겨울타이어·스노우체인
부동액 비율 높여 50대 50
배터리 방전 주의
겨울철용 엔진오일 사용

다가올 한파에 대비해 타이어를 점검하고 냉각수 결빙과 배터리 방전 여부를 체크하는 등 자동차 점검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겨울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요령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국토부는 강추위와 폭설이 잦은 겨울철에는 방판길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사고와 냉각수 결빙과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 불능, 프레임 부식에 따른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부탁했다.

눈길이나 빙판길 운행 시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됐다면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끄러짐이 심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낡은 타이어는 고무에 탄력이 떨어지고 갈라질 수 있어 파열 위험이 높은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월 1회 이상 공기압을 체크하는 등 타이어를 점검할 것을 권했다. 타이어 제작사가 권하는 겨울철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90% 수준이다.

또한 마모한계가 1.6mm미만 타이어와 균열된 타이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한지 3년이 지나도 교체해야 한다. 한파에 대비해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고 4계절용 타이어를



올 뉴 K7 하이브리드 나왔다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W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올 뉴 K7 하이브리드' 출시 행사에서 김경식 부사장과 배우 공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올해 1월 출시된 '올 뉴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액티브 에어 플랩, 하이브리드 전용 휠로 구현된 등급 최고 연비 16.2km/l, 향상된 주행성능이 특징이다.

사용하려면 스노우체인을 준비할 것을 권했다.

여름철에 부동액 대신 냉각수를 사용했다가 겨울철에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냉각수가 결빙하면서 엔진이 파손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영하 날씨에는 부동액 비율을 높여 50대 50으로 희석하고 정기적으로 부동액 양과 색상을 체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용한 지 2년이 지났다면 교체할 것을 부탁했다.

자동차 실내 열선이나 히터 등 온열 장치를 오래 사용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국토부는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햇빛이 보이는 날 10~15분 정도 가볍게 운행할 것을 부탁했다. 배터리의 녹색 표시등을 확인하고 배터리 출력과 발전기 충전 전압도 점검하라고 제안했다.

불필요한 등화장치는 끄고 오랜기간 주차할 때에는 터미널 단자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배터리는 3~4년 사용한 뒤 교체해야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엔진오일 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겨울철용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유리창에 성애가 끼지 않도록 주차 시 유리에 신문지나 천 등을 덮으면 도움이 된다.

브레이크는 오일상태와 패드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브레이크 호스에서 기름이 새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보다 브레이크가 걸게 밟거나 스펀지를 밟는 느낌이 든다면 점검이 필요하다.

이 밖에 폭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길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자동차 골격을 유지하는 프레임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발생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하체 바닥면과 실내 등을 세차할 것을 권했다. 또한 자동차 하부를 부식방지액으로 코팅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뉴스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루 천만명 이용

매월 발신되는 이모티콘 메시지 수 20억건

디지털 언어수단으로 자리잡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세상에 나온 지 5년이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5주년을 기념해 이모티콘 성장 과정, 이모티콘 판매 트렌드, 각종 수치와 기록 등을 29일 공개했다.

카카오는 2011년 11월29일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처음 도입했다. 텍스트로 표현이 어려운 풍성한 감정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모티콘 시장이 성장하면서 누적 이모티콘 상품은 4800여 개 이상으로 5년만에 800배가 증가했다. 매일 발신되는 이모티콘 메시지 수만 20억건에 달하며 하루 1000만명의 카카오톡 사용자가 텍스트를 대신해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

이모티콘 구매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1400만명이 이모티콘을 구매했으며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규 구매자가 발생했다. 이모티콘을 사기 위해 '이모티콘 스토어'에 들어온 누적 방문수도 200억건에 달한다.

이모티콘이 하나의 콘텐츠로 성장하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는 창작과 수익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호조, 키키, 똥 작가 등은 10억 이상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다.

카카오톡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 프렌즈'를 제외하고 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이모티콘은 '쭈뼌을 애교쟁이'였다. 이어 '오버와 액션'을 그대에게', '갖고싶다 너. 애교쟁이 예비쭈 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선택된 이모티콘은 '나에미와 함께 폭풍복'이었다.

카카오는 연도별로 유행했던 이모티콘 캐릭터 순위도 함께 소개했다. 2012년에는 '뽀빠'와 '노란 구미'가 인기를 끌었고, 2013년에는 '토끼 프렌즈'와 '캣츠멜로디'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4년에는 육아프로그램에 나온 '추사랑'과 '삼둥이', 2015년에는 인기 노래 '백세인생'이 이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는 인기 웹툰 '내학일기'와 '오버액션 토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초 '이모티콘 웹스토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모티콘 결제 수단을 늘려서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생태계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다.

김희정 카카오 특이템파트장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을 발판으로 창작과 수익이 연결되는 '이모티콘 생태계'를 만들어왔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

기업이력서에 가족정보 기재 금지

앞으로 기업들은 이력서에 채용 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게 해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취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는 채용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게 해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고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또 쿠키(사용자PC에 만들어지는 임시파일)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로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못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 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돼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수집해야 하고 그 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 /뉴스

행정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구글, AI '포토' · '번역' 신기능 소개

종이 사진, 디지털 파일로 전환 '포토스캐너' 눈길

구글이 한층 더 정교해진 인공지능(AD)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글코리아는 29일 오전 강남 사옥에서 'AI 혁신의 시대: 구글 포토와 구글 번역' 설명회를 열고 AI 기반 서비스 '구글 포토(Google Photos)'와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했다.

사진 관리 서비스 '구글 포토'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태그 없이도 연도별, 상황별로 분류해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종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해 관리할 수 있는 '포토스캐너(PhotoScan)' 앱이 소개됐다. 스마트폰 사진을 찍는 것처럼 사진을 스캔하는 서비스다.

구글의 포토스캐너는 스캔하는 사진

의 반사광을 제거해 오래된 필름 사진도 고품질의 디지털 사본으로 만들어준다. 별도의 스캔 장비 없이도 종이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 수 있다. 이 기능은 구글 포토와 연동된다.

올해 출시 10년째를 맞는 구글 번역은 신경망 기계번역 기술(Google Neural Machine Translation, GNMT)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문장 내 구문 단위(Phrase-Based Machine Translation, PBMT)를 번역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문장을 하나의 번역 단위로 간주해 한 번에 번역해준다.

현재 GNMT 기술이 적용된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 등이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